‘송송커플’ 1년 9개월만에 ‘남남’…이혼 조정 성립

조정 신청 27일 만에 마무리
“위자료·재산분할 없이 이혼”

연기자 송중기(34)와 송혜교(38)가 결국 결혼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완전히 ‘남남’이 됐다. 2017년 10월31일 결혼한 뒤 1년 9개월 만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장진영 부장판사)은 22일 오전 송중기와 송혜교의 이혼 조정 기일이 비공개로 열려 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하는 절차로, 양측이 이에 합의하면 확정판결의 효력을 지닌다. 송중기는 지난달 26일 송혜교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을 냈다. 이후 27일 만에 조정이 성립됐다. 이에 따라


송중기


송혜교

두 사람은 법적으로 이혼하게 됐다.

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이날 법원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조정이 성립하기까지 절차는 채 5분도 걸리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이 이혼과 관련한 사항에 이미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날 UAA는 “양측 서로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절차가 마무리되었다”고 알렸다. 앞서 송중기 역시 법률대리인을 통해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이들의 이혼 사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바 없다. 이 때문에 이른바 ‘지라시’ 등 온갖 루머가 나돌기도 했다. UAA는 지난달 두 사람의 파경 소식을 알리며 “사유는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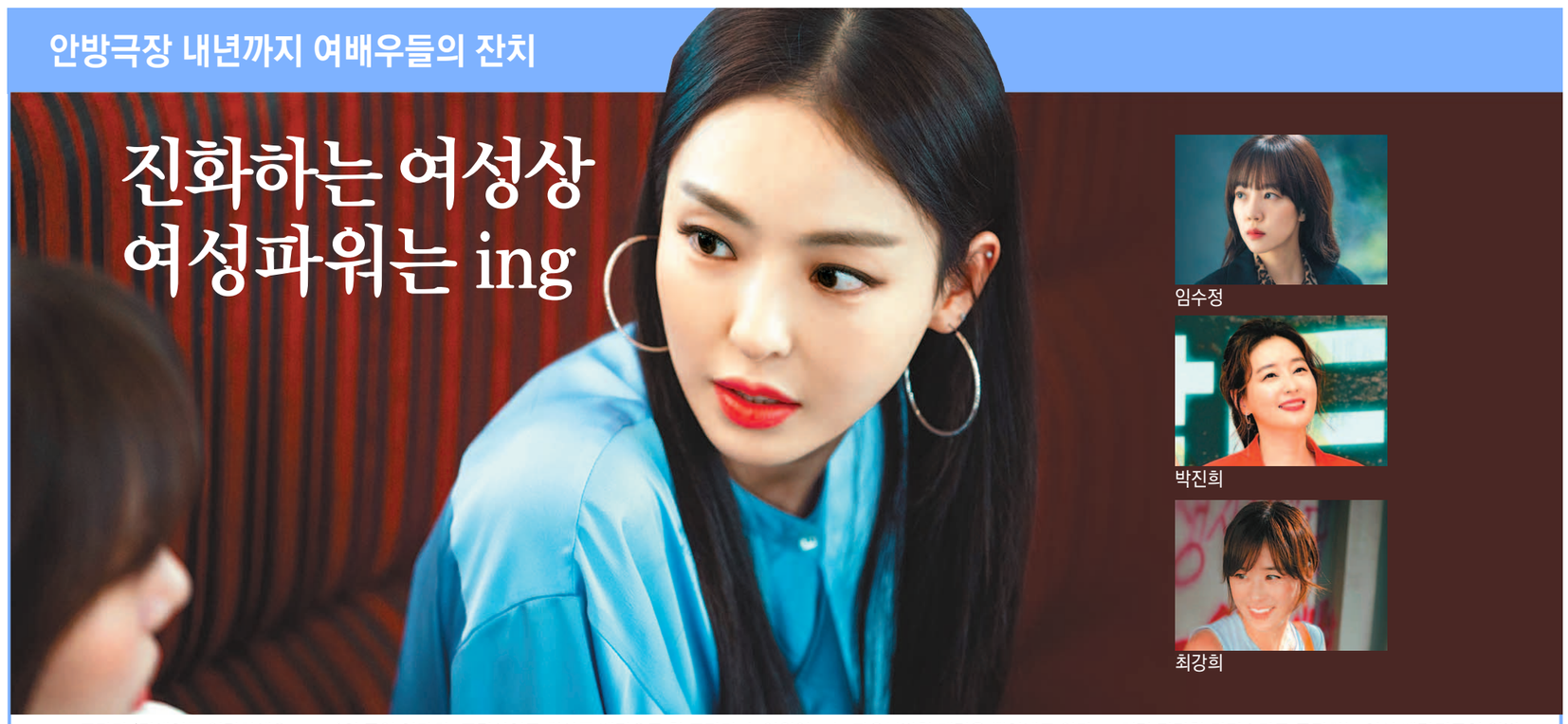
2016년 KBS 2TV 드라마 ‘태양의 후예’로 처음 인연을 맺고 사랑을 쌓은 두 사람은 이듬해 10월31일 ‘세기의 결혼식’을 올리며 국내외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올해 초 불화설이 불거지는 등 심상찮은 기류에 휩싸이기도 했다. 결국 결혼 1년 9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

이런 아픔 속에서도 송중기는 현재 영화 ‘승리호’ 촬영을 이어가고 있다. 송혜교 역시 국내외 행사 등에 참여하고 있으며, 영화 ‘안나’ 촬영을 앞두고 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안방극장 내년까지 여배우들의 잔치

진화하는 여성상 여성파워는 ing



임수정

박진희

최강희

tvN 드라마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WWW’의 주연 이다희. 포털사이트 회사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 속 임원인 그는 자유분방한 매력을 뿜어내고 있다. 그처럼 당당한 카리스마로 무장하는 여성 캐릭터들이 안방 극장을 장악할 기세다.
사진제공 | CJ E&M

‘WWW’ 임수정·이다희 등 매력 철철
‘닥터 탐정’ 박진희도 압도적 캐릭터
하반기 최강희·김서형·김선아 출동

이전과는 다른 여성 캐릭터가 더욱 주체적인 모습으로 대거 안방극장을 찾는다. 이를 연기하는 연기자들의 면면도 호화롭다. 이들의 활약은 진취적인 캐릭터를 더욱 돋보이게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선두주자는 임수정·전혜진·이다희. 현재 케이블채널 tvN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WWW’를 무대 삼아 각기 다른 매력으로 카리스마를 뿜어내고 있다. 할 말은 확실하게 하는 당당함과 뛰어난 능력을 과시하는 이들은 주체적이고 역동적인 모습으로 여성 시청자의 공감을 얻고 있다.

SBS ‘닥터 탐정’ 속 인물들도 거침없다. 극중 박진희를 중심으로 박지영, 이영진 등은 산업재해의 이면에 은폐된 사실을 파헤치고 그 속에 감춰진 질환을 드러내는 데 물불 가리지 않고 뛰어든다. 직업적 사명감으로 자신의 위치에서 제 몫을 톡톡히 해내는 역할이다. 각 캐릭터의 성격이 뚜렷한 만큼 이를 맡은 연기자들의 실력도 탄탄해 긍정적 결과를 내고 있다.

9월부터는 여성 파워가 더욱 다양한 모습으로 그려진다. 김선아, 최강희, 김서형, 서현진이 차례로 바통을 건네받아 강인한 여성상을 선보일 예정이다.

김선아는 9월 SBS ‘시크릿 부티크’를 통해 서울 강남의 목욕탕 세신사가 재벌가 ‘하녀’를 거쳐 정재계 비선 실세로 거듭나는 인생 역전을 보여준다. 11월 방송하는 SBS ‘굿 캐스팅’의 최강희는 국정원 블랙요원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대기업 비리를 캐내는 위장 스파이로 나선다. 또 다른 주인공인 유인영·김지영과 호흡을 맞추며 ‘트리플’ 여성 파워를 기대하게 한다.

내년 1월 김서형과 서현진은 각각 SBS ‘아무도 모른다’와 tvN ‘블랙독’을 무대로 삼는다. 김서형은 광역수사대 소속 강력계 팀장 역을 맡아 리더십을 발휘하며 강력한 카리스마를 과시한다. 안성맞춤 캐스팅이라는 평가가 벌써부터 나온다. 기간제 교사 역인 서현진은 ‘전쟁터’와도 같은 사립학교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약자의 강인함을 드러내는 ‘언더 독’의 반란을 일으킨다. 하재근 대중문화평론가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미투’ 운동 이후 여성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면서 “드라마 속 남성 위주의 이야기 전개에서 벗어나 더욱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여성상을 필요로 하게 됐다”고 말했다.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연예뉴스 HOT 4

경찰, 성접대 의혹 양현석 강제수사 검토


양현석

경찰이 해외 투자자 성 접대 의혹을 받는 YG엔터테인먼트 전 총괄 프로듀서 양현석에 대한 강제수사를 검토 중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22일 “계좌 추적과 출국금지 등 양현석에 대해 강제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혹 관련자 소환조사와 임의제출로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 단서를 확보, 수사로 전환했다”고 덧붙였다. 양현석은 2014년 동남아 재력가를 접대하는 자리에 유흥업소 여성을 동원했다는 의혹으로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그룹 노이즈 출신’ 한상일 9월 결혼


한상일

그룹 노이즈 출신 한상일이 9월 동갑내기 연인과 결혼한다. 한살일은 9월26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다. 이에 앞서 22일 서울 강남의 한 스튜디오에서 웨딩사진을 촬영했다. 한상일과 예비신부는 2015년부터 사랑을 키워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상일은 1992년 홍종구·천성일·김학규와 함께 노이즈로 데뷔했다.


이진


성유리

이진, 성유리 소속사와 전속계약

연기자 이진이 그룹 핑클의 동료 성유리와 한솥밥을 먹는다. 이진은 최근 성유리의 소속사 버킷스튜디오와 전속계약을 맺은 사실이 22일 뒤늦게 알려졌다. 성유리와 이진은 이로써 향후 핑클 멤버들의 또 다른 활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두 사람은 1998년 이효리·옥주현과 함께 그룹 핑클 멤버로 데뷔한 뒤 현재 연기자로 활동 중이다.

김의성, 부산영화제 공동운영위원장에


김의성

배우 김의성이 부산국제영화제 커뮤니티비프 공동운영위원장이 됐다. 부산국제영화제는 22일 “관객이 직접 프로그래밍해 다채로운 상영 및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커뮤니티비프의 활성화를 위해 김의성을 공동운영위원장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김의성은 기존 박채성·조원희 운영위원장과 함께 활동한다. 올해 부산국제영화제는 10월3일부터 12일까지 열린다.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강다니엘 25일 ‘컬러 온 미’로 컴백


강다니엘

그룹 워너원 출신으로 솔로 데뷔하는 강다니엘이 국내외 시장을 동시 공략한다.

25일 오후 첫 솔로 앨범 ‘컬러 온 미’를 발표하고 활동을 시작하는 강다니엘은 이날 오후 서울 광장동 예스24라이브홀에서 데뷔 쇼케이스를 열고 국내 팬들에게 인사한다. 22일 소속사 커넥트엔터테인먼트 측은 “구체적인 활동 일정은 현재 조율 중”이라면서도 “오래 기다려준 팬들에게 새 앨범을 먼저 소개하는 것이 우선이다”고 밝혔다.

이후 해외로 나간다. 8월16일 싱가포르에서 쇼케이스를 열고, 18일 홍콩에서도 팬미팅을 진행한다. 이날 현재까지 확정된 도시는 2곳이지만 추가 일정을 순차적으로 공개해 해외 팬들과 소통할 예정이다.

강다니엘의 이번 솔로 앨범은 타이틀곡 ‘뭐해’를 비롯해 ‘컬러’, ‘호라이즌’, ‘아이 호프’ 등 5개의 곡을 담았다. “자신의 색을 만들어가겠다”는 포부를 앨범에 녹였다. 앨범 시작을 알리는 인트로곡을 제외하고 4곡을 작사했다.

이정연 기자

엑소 빈자리, 유닛 ‘세훈&찬열’이 메운다

첫번째 미니앨범 ‘왓 어 라이프’ 발표
힙합 도전장…“선입견 없이 봐줬으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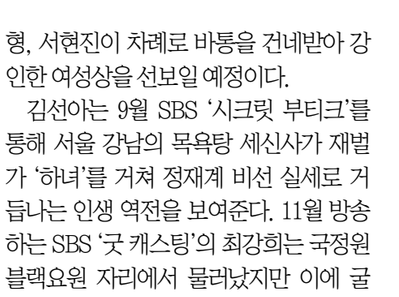
“색안경을 끼지 말고, 본연의 모습을 봐달라!”

또 하나의 엑소가 나왔다. 하지만 색깔은 전혀 다르다.

아이돌 그룹 엑소의 새로운 유닛인 ‘세훈&찬열’(엑소-SC)이 22일 첫 번째 미니음반 ‘왓 어 라이프’(What a life)를 발표하고 그동안 숨겨왔던 색다른 모습을 공개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 서교동 무브홀에서 쇼케이스를 열고 “데뷔하기 전부터 꼭 한번 도전해보고 싶었던 힙합 장르”라면서 “엑소 안에서와 우리 둘만의 모습이 확연하게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앨범에는 ‘힙합 대가’들이 총출동했다. 다이나믹 듀오의 개코와 히트 작곡가팀인 디바인채널이 전 곡 프로듀싱을 맡았고, 힙합 그룹 리듬파워의 보이비와 행주, 힙합 레이블 AOMG 대표 프로듀서 그레이 등이 참여했다. 찬열과 세훈도 공동으로 가사를 썼다.

다분히 작정하고 도전한 변화처럼 보인다. 케이팝을 대표하는 아이돌 그룹의 멤버가 그동안 주로 선보였던 ‘아이돌 음악스타일’을 버리고 힙합장르를 선보였다는 점에서 흥미를 자극한다.


엑소 세훈(왼쪽)과 찬열

“우리가 힙합을 한다고 하면 분명 ‘아이돌’이라는 프레임에 가둬놓고 평가할 것 같았다. 따끔한 충고도 할 것이고, 많이 조심스럽다. 하지만 제발 선입견을 갖지 말고, 있는 그대로 우리 모습을 봐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데뷔 이후 가치관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이돌의 한계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아이돌인데 왜 굳이 벗어야 하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 그러면서 부담감도 조금 없어졌고, 음악이라는 매개를 통해 우리의 모습을 알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멤버들 가운데 두 사람이 호흡을 맞춘 의도도 앨범의 색깔에서 잘 드러난다. “일하는 것도, 노는 것도 모두 즐겁게 하자”는 메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다. 이날 쇼케이스 진행을 맡은 엑소의 리더 수호는 “멤버 가운데 가장 잘 노는 사람이고, 놀기 위해 일하는 멤버”라고 이들을 소개했다.

두 사람이 유닛으로 나서면서 9인조 엑소의 ‘완전체’ 역할도 할 수 있게 됐다. 시우민과 디오가 현재 군 복무 중이라 다른 멤버들은 개별 활동 중이다. 그나마 현재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3회씩 나눠 진행하는 콘서트가 함께 오르는 무대다. 26~28일 공연만 남겨뒀다.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 멤버들의 빈자리가 크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다. 콘서트에 오르기 전 여섯 명이 그 이상의 에너지를 보여주자고 말했다. 굉장히 허전해도 마음으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